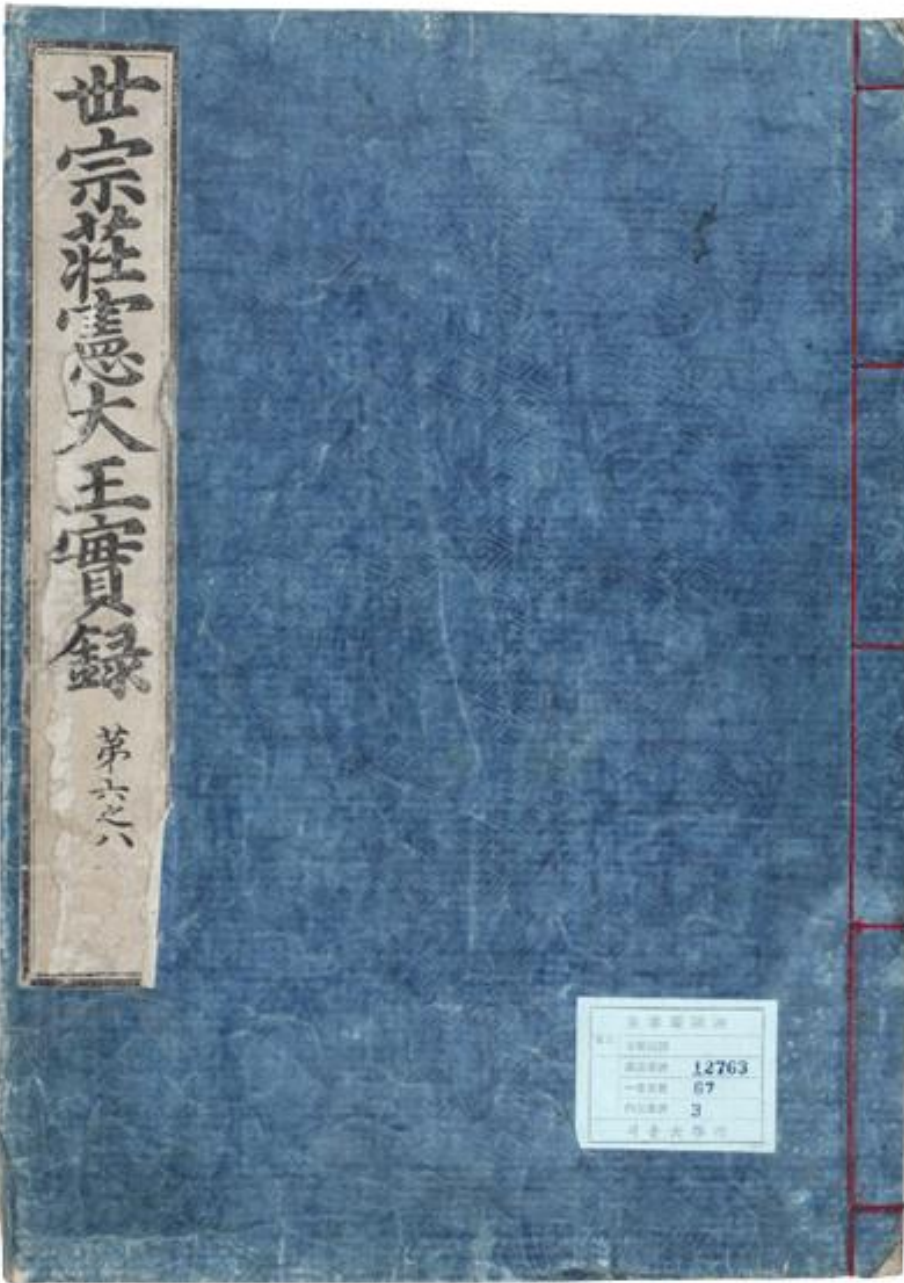


독도, 언제부터, 왜 독도였을까?
- 우리나라에서 독도를 부르던 이름들

독도를 지칭한 이름으로 가장 먼저 확인되는 것은 우산도(于山島)이다. 15세기까지는 울릉도와 독도 모두 '우산도'로 지칭되어 혼동되지만, 점차 울릉도의 이름이 무릉(武陵), 울릉(鬱陵)으로 통일되면서 '우산도' 또한 독도의 이름으로 바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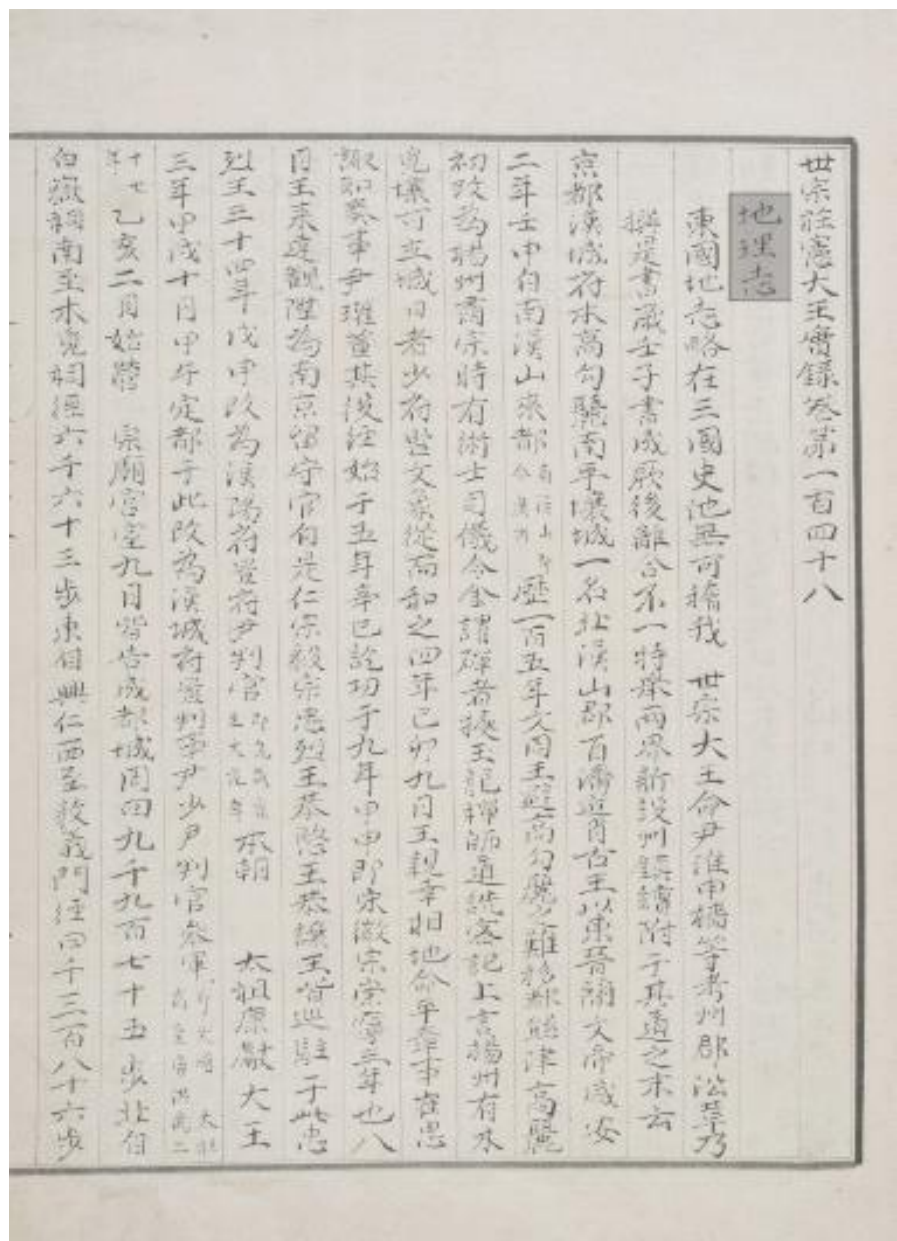


“전 판장기현사 김인우를 우
산도(于山島)·무릉도(武陵島)
등지의 안무사로 삼았다. 당
초에 강원도 평해 고을 사람
김을지·이만·김울금 등이 무
릉도에 도망가 살던 것을
...(후략)...”

-세종실록, 1425년 8월 8일

“우산(于山)과 무릉(武陵)
2섬이 현의 정동 해중에
있다. 【2섬이 서로 거리가
멀지 아니하여, 날씨가 맑
으면 가히 바라볼 수 있다.
신라 때에 우산국(于山國),
또는 울릉도(鬱陵島)라 하
였는데”

-세종실록 지리지, 강원도/
삼척도호부/울진현



그 이후에도 우산도라는 이름은 조선 영조 때에도 등장하며, 조선시대에 등장하는 자산도(子山島), 간산도(干山島), 천산도(千山島) 등의 이름들 모두 우산도의 한자 표기를 잘못 읽거나 써서 나온 표기이다



“정축년(1697)과 무인년(1698)에 조정에서 장한상을 보내어 울릉도의 모습을 보고 오라고 하였습니다. …(중략)…그리고 그 서쪽에는 우산도(于山島)가 있는데 그 곳도 매우 넓다고 합니다. 그후 3년마다 한번씩 그 곳을 가서 조사하는 것을 일정한 방식으로 삼았습니다.”

-비변사등록 1735년 1월 19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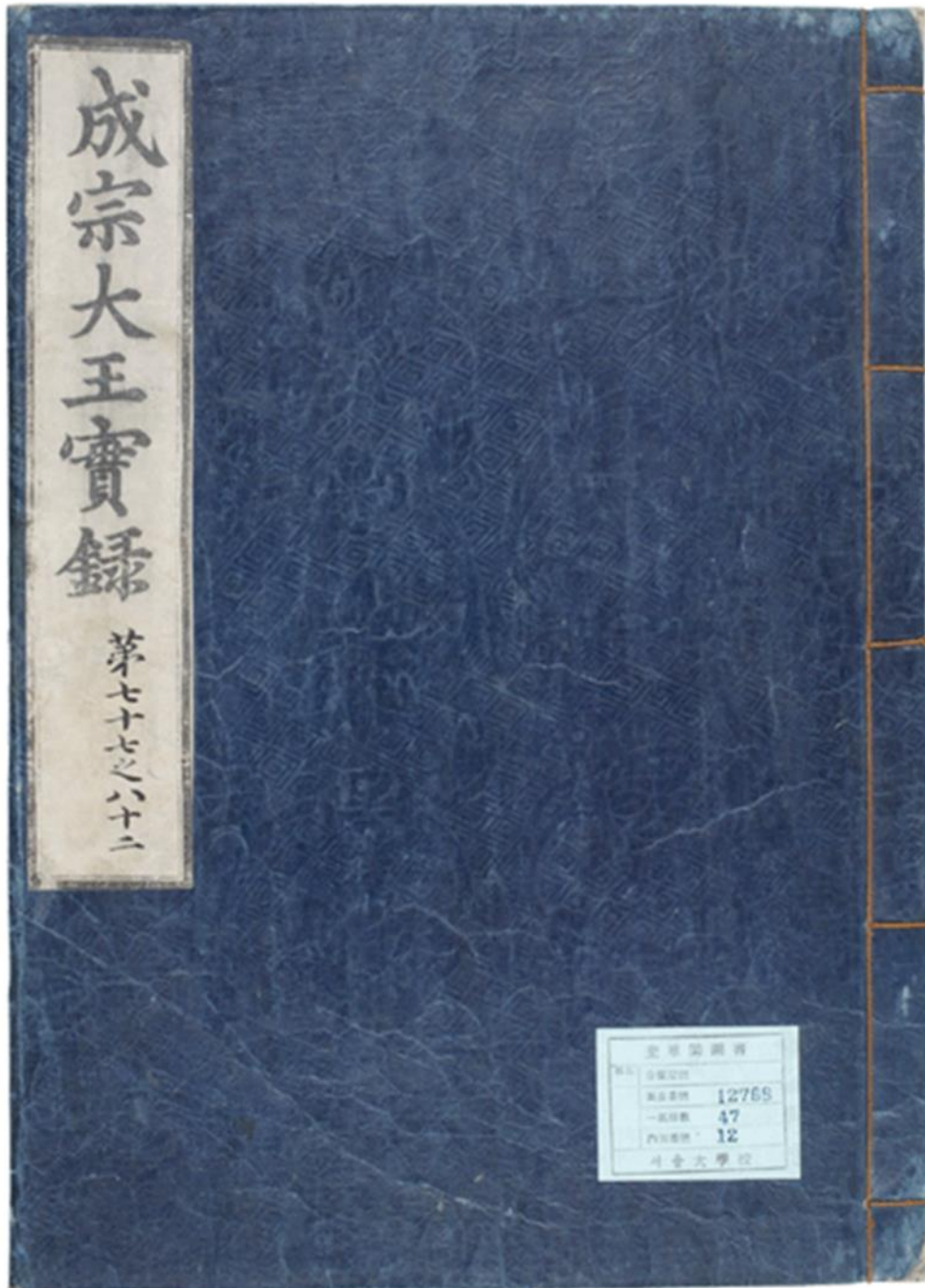


"...(중략)... 왜인이 말하기를, '우리들은 본디 송도(松島)에 사는데 우연히 고기잡이 하러 나왔다. 이제 본소로 돌아갈 것이다.' 하므로, '송도는 자산도(子山島)로서, 그것도 우리 나라 땅인데 너희들이 감히 거기에 사는가?' 하였습니다." -숙종실록, 1696년 9월 25일, 안용복의 진술 中

삼봉도는 독도가 겹으로 보기에 세 봉우리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나온 이름으로, 성종실록에서 언급된다. 다만 삼봉도는 울릉도로도 생각할 수도 있으며, 조선 조정은 삼봉도의 실체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삼봉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론내렸다.

“김한경의 말이, ‘경흥에서는 청명한 날이면 삼봉도(三峯島)를 바라볼 수 있는데, 회령에서 동쪽으로 배를 타고 이레 밤낮을 항해하여 도착하고, 북쪽으로 나흘 밤낮을 항해하여 돌아왔습니다.’”

-성종실록, 1473년 1월 9일





가지도는 '강치섬'을 한자로 음차하여 적은 것으로,
원래 독도 인근 해역에 강치가 많았던 것에서 유래
했다.



“거기서 자고 26일에 가지도(可支島)로 가니, 네댓 마리의 가지어(可支魚)가 놀라서 뛰쳐나오는데, 모양은 무소와 같았고, 포수들이 일제히 포를 쏘아 두 마리를 잡았습니다.”

-정조실록, 1794년 6월 3일

독도는 '돌섬'에서 온 말이다. '독'은 '돌'의 방언인데, 초창기 울릉도에 정착한 사람이 독도를 '돌섬', '뒹섬', '독섬' 등으로 불렀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어원을 가진 석도(石島)는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에서 사용되었다.

독도(獨島)라는 이름은 1906년 울도군수 심흥택이 올린 보고서에서 처음 쓰인 뒤 굳어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실제 울릉도 주민들은 '돌섬', '독섬'이라는 이름을 계속해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저희 '독도에 대한(大韓)사랑' 많은 응원과 공유 부탁드립니다!

동해바다
독도사랑



-페이스북 '독도에 大韓 사랑' 검색

<https://www.facebook.com/%EB%8F%85%EB%8F%84%EC%97%90-%E5%A4%A7%E9%9F%93-%EC%82%AC%EB%9E%91-390656688082412/>

- 네이버 블로그 '독도에 대한(大韓)사랑' 검색

<https://m.blog.naver.com/PostList.nhn?permalink=permalink&blogId=onlyhappy01>

사진 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국사편찬위원회,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외교부, 울릉군청